



水道 關聯學科 探訪

— 서울産業大學 衛生工學科를 찾아서 —

오늘날 國家經濟의 成長과 급격한 工業技術의 발전 및 細分化에 따라 上, 下水道 工學分野에 있어서도 계속적인 研究開發 및 高度로 訓練된 人力資源 확보의 필요성이 과거 어느 때보다 더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여기에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用水, 廢水處理 등 環境工學 전반의 技術을 專門적으로 研究, 敎育하고 있는 서울 産業大學 衛生工學科를 찾아 學科長 金東玟博士로부터 이 학과의 現況과 敎育의 目標을 알아 보았다.

서울 特別市가 設立, 運營하는 이 나라 唯一의 市立大學으로 東大門區 典農洞 배봉산 기슭에 자리한 이大學은 1973年 12月 前身인 서울 市立 農業大學을 改編하여 날로 팽창해 가는 都市의 諸問題를 해결 하는데 필요한 要員의 養成을 목표로 하여 設立된 것으로 1974年 4月부터 正規 工科大學으로서의 첫 學生을 募集하여 현재 本 衛生工學科에는 120여명의 學生들이 國內外에서 研究한 4名의 權威敎授陣의 지도를 받아 열심히 공부하고 있다. 1978年 2月에 첫 졸업生을 社會에 배출할 예정이며 손색없는 專門技術 人格을 갖춘 工學徒를 養成하기 위한 不斷한 노력을 傾注하고 있다.

이 學校의 敎育目標은 在來의 上下水道工學을 發展시킨 用水 및 廢水處理系例의 工學과 大氣 汚染防止工學, 固形廢棄物處理 등 環境汚染防止 技術에 관한 一貫의 이고 綜合的인 能力을 學生 들에게 부여하는 데에 있다. 예를 들면 用水 및 廢水處理의 경우 學生들은 스스로 環境 및 汚染 度調查, 分析實驗, 設計계산, 圖面作成, 施工

監理, 運轉등을 할수 있도록 訓練된다. 이러한 目標을 達成하기 위하여 敎科課程은 一般敎養 科目과 敎學, 物理, 化學, 圖學, 分析化學, 環境微生物學 등의 專攻基礎科目 및 工學의 여러 基礎科目 등으로부터 물處理, 大氣汚染防止, 固形廢棄物處理를 위한 「프렌트」設計를 主軸으로 편성되어 있다.

서울 市의 強力한 支援에 의하여 建設된 新築 理工學館에 最新實驗設備를 갖추고 있으며 末年부터는 大學院課程을 新設하고자 推進中에 있다.

이러한 急速한 發展은 具滋春 現서울 市長과 學長 朴重潤博士의 格別한 熱意에 의하여 이룩 되고 있다. 여하튼 이러한 學科의 新設과 發展은 날로 高度化가 要望되는 水道技術의 將來를 위하여 크게 고무적이라 아니할수 없다.



理工學館全景